

매절계약 해석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콘텐츠 업계에서 '매절계약(賣切契約)'은 자주 문제가 되는 계약 형태 중 하나다. 이는 출판사 등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가지는 형태를 말한다. 나중에 해당 저작물을 통해 커다란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저작자 측에서 불공정 계약 등의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출판사 등은 초기 투자 위험을 부담하므로(즉, 해당 저작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계속 보유하므로) 불공정한 조건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저작권법에 비춰보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 사안은 원고가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음악저작물을 작성해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것이었는데, 음원공급계약에는 '매절'이란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정의를 규정이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여 매절된 음원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했다. 그리고 1심 및 2심은 모두 위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해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문언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법리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위 음원공급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단의 근거로, ▲위 음원공급계약에는 소외 회사가 이전받는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에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매절'은 저작물의 출판계약에서 그 출판 대가를 발행 부수에 관계없이 미리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는 배제하기로 하는 출판 대가의 지급방식을 일컫는 것으로도 사용되는데, 위 음원공급계약에서 '매절'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은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음악저작물을 리듬게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회사가 반드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만 이러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에 따른 효과(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상실 등)에 비춰 보았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 실무자로서는 계약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양수도'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그 계약의 문언 등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반도체 초격차의 역설... 변수는 '사람'



기지수첩 구 남 영 (산업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싼 시선은 생산 차질과 공급망 영향에 쏠려 있다. 그러나 사안을 단순히 '라인 가동' 문제로만 보는 접근은 부족하다. 첨단 산업일수록 인력 변수가 더 크게 작동하는 역설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출발점은 성과급 체계다. 회사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유지한 채 특별 포상 등 추가 보상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일회성 보상이 아닌 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쟁점은 지급 규모보다 보상 방식과 기준에 대한 신뢰에 가깝다. 갈등은 반도체 경쟁의 축 변화를 드러

낸다. 과거 산업을 지배한 것은 설비와 공정이었다. 더 미세한 공정과 더 많은 생산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람의 개입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뒤따랐다.

AI 반도체 경쟁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공정은 설계-공정-패키징이 동시에 맞물리는 구조다. 특정 엔지니어의 숙련도와 조직의 협업 수준이 수율과 성능, 납기 대응까지 좌우한다. 같은 설비를 갖추고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인력 변수의 영향력도 커진다. 설비는 투자로 확보할 수 있지만,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성과로 연결할 조직과 인력은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 인력 확보와 유지, 조직 운영 방식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는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체계에서 사업부 간 실적 편차는 불가피하다. 격차는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성과급 논쟁은 특정 사업부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조직 내부 균열로 번지고 있다.

유사한 흐름은 업계 전반에서도 감지된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인력 확보와 유지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배경이다. 결국 반도체 산업은 또 다른 전환점에서 있다. 공정은 최첨단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인력과 조직에서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기술 경쟁력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AI 시대 반도체 경쟁의 변수는 더 이상 공정만이 아니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7일 (음 3월 1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해결됩니다. **60년생** 지출이 많겠습니다. **72년생** 과도한 욕심은 금물. **84년생** 친절한 전화 한 통화가 당신과 애인 사이를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 49년생**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 **61년생** 당신의 계절이 왔습니다. **73년생** 너무 외로워 하지 마세요. **85년생** 애정운이 하락하고 있으니 서두르지 마세요.
- 50년생**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62년생** 모든 모임에는 꼭 참석하세요. **74년생** 어려울수록 진실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86년생** 귀인을 만나며,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51년생** 공적인 일엔 행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63년생** 이 달 말에는 교통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75년생** 욕심이 좋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87년생** 모든 문서 체결은 지급하세요.
- 52년생** 원기를 보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4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려 보세요. **76년생** 방황하는 당신의 마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88년생**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 53년생** 깊이 있는 인생을 위하여 한가지 일에 열중하세요. **65년생**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77년생** 옛사랑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89년생** 과음은 절대 하지 마세요.
- 54년생** 객지에서 친구를 만나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66년생** 아무리 원대한 소원이라도 쉽사리 성취됩니다. **78년생**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90년생** 아픈뺨이 병원에 가게요.
- 55년생** 역시 친구 밖에 없습니다. **67년생** 심사 숙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79년생**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중하세요. **91년생** 친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 56년생** 이달 말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8년생** 사랑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80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아량과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92년생**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 57년생**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9년생** 여행운과 국외로 나갈 운이 많습니다. **81년생** 내직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93년생** 지나친 생각은 금물입니다.
- 58년생** 미래를 위해서 견문을 확대 시키는 좋은 계기입니다. **70년생** 자신을 믿고, 행동하세요. **82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94년생** 애정운은 하락세입니다.
- 59년생** 지금껏 갖고 두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옵니다. **71년생**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83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입니다. **95년생** 바쁜 한달을 보낼 것입니다.

김상회의 四季 중삼일(重三日) 기도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이름난 기도처가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다. 장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년 365일 중 초하루와 보름날은 불교 신자라면 절에 가서 삼배라도 하고 와야 직성이 풀린다. 더하여 홀수가 겹치는 달과 날은 우리 선조들은 매우 상서로운 날이라 하여 무조건 기도 심이 충천했다. 홀수는 양의 기운이어서 만물을 살리니, 하여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같이 양수가 겹치는 날 특히 삼월삼짇날이나 단오날은 나라나 지방 관아의 관리들에게 하루의 휴가를 허락할 정도였다. 더 나아가 형의 집행을 금하는 금형의 날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날이 삼월삼짇날이니, 선조들이 완벽하다고 여기며 좋아한 숫자인 석 삼자가 두 번 겹치는 중삼일(重三日)이라 재수발전 기도를 많이 올렸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들은 이미 녹아 농염해진 봄기운이 초봄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춘양을 담백 품은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으며 술도 담가 마시니 몸은 순수한 양기로 보호되며 마음은 저절로 즐거워진다. 절기로는 청명이나 한식 근처거나 사이가 된다. 식목일이 바로 삼월삼짇날 근처이기도 한 이유이다. 만물을 살아 올리는 양기가 한껏 충만하게 뻗어 나가는 시기이니 삼월삼짇날 혼사는 길일을 묻고 따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다. 그렇게 길상한 날이니 기도받은 또 어떠했는가? 재수대통을 염원하며 참 삼재를 올리며 기뻐한 날이듯 민속적으로도 마을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임금님이 친히 제주가 되어 풍년을 기원하며 나라의 안녕을 빌었다. 농업이 가장 중요한 나라의 근간 산업이었던 과거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삼월삼짇날은 매우 각별했지만, 현재는 농촌에서도 화전을 부쳐 먹는 일은 찾기 힘들다. 필자는 삼짇날 기도와 축원만큼은 소중히 여기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8			1	9	
	1			6				
8			5					6
5	7	4		8				
			7	6	3			9
	5				1			6
			7				8	
4	1			5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고아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8	2	9	8	9	1	7	6
1	8	9	7	△	6	2	9	8
9	7	6	1	8	2	8	9	△
6	9	8	9	2	7	8	1	△
8	△	7	8	9	1	9	6	2
2	1	9	8	6	7	△	8	9
7	9	△	6	1	9	8	2	8
9	2	8	△	9	8	6	1	7
8	6	1	△	7	8	9	△	9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0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0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